

“대전은 문화예술 불모지...이제 그만”

대전문화재단 창립기념식서 박성호 시장 강조



▲6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대전문화재단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박성호 대전시장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현판제막식을 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canon@daejonilbo.com

대전시가 민간 전문가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한 대전문화재단이 6일 오후 2시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출범했다.

창립기념식에는 재단이상장인 박성호 대전시장을 비롯해 최남인 한국예총 대전시연합회 회장, 조성남 대전문화원연합회 회장, 심갑섭 인천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해 문화재단의 출발을 축하했다.

박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전에 많은 사람이 대전은 문화예술이 불모지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했으나, 이제 그 단어는 창고에 넣어야 할 것”이라며 “김구 선생이 ‘문화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하셨듯이, 모든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품격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문화재단은 그동안 대전시가 해왔던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원사업은 물론 시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예진흥 정책 자문 및 교육·조사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등 대전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초대 대표는 박강수 전 배재대총장이, 사무처장은 음악평론가 문옥배씨가 맡았다. 설립자산 100억원(문예진흥기금)으로 출발한 문화재단의 기금규모는 2020년까지 500억원으로 증액된다.

박 대표는 “대전은 물론 저 멀리 제주도와 강원도 등에서 찾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대전이 문화의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문화재단의 출범으로 지역문화예술이 한 단

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이 새로운 문화전기를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창립식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현판 제막식이 거행됐으며 풍물경연, 금관 6중주 등 다채로운 축하행사도 펼쳐졌다.

김효숙 기자 press1218@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